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 분석 연구

윤지아¹, 박찬주², 신호진^{3*}

¹동덕여자대학교 교육컨설팅학과, ²메쉬코리아 인재문화실, ³열린컴퍼니

A Study on the Priority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on Work Values

Ji-A Youn¹, Chan Joo Park², Ho Jin Shin^{3*}

¹Department of Education Consulting, Dongduk Women's University

²Dept. People & Culture, Mesh Korea

³Real Edu Compan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직업가치관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시이다. 연구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직업가치관에 대한 현재와 기대하는 수준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직업가치관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을 찾아 위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국 대학생으로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7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t검정,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했고, 직업가치관 요인의 순위뿐 아니라 어느 요인까지 고려해야 할 것인지, 상위 수준의 요인 중에서도 더욱 필요로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선별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의 최우선순위는 시간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이 나타났고, 차 순위는 일의 흥미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직업가치관 교육에서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교수 내용을 선정할 때 위의 4개 직업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work valu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t further sought to prioritize these requirements and evaluat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same. The study identified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esent and expected levels of work values recogniz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found the relatively important factors in these work values, ranked them, and prioritized the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78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selected to be part of the study from April 18 to April 22, 202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frequency analysis, t-test, Borich's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analysis sought to determine not only the ranking of work values, but also whic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nd which of the higher-level factors are necessary. To summarize the research results, the top priority of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work values included time,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and economic compensation (salary, income, allowance, etc.), and the ranking of cars was derived from 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four work values listed above should be considered first when setting educational goals and selecting the work value related content imparted by the professors in the university.

Keywords : Work Values, Educational Needs, University Students, The Locus For Focus Model, Priority

*Corresponding Author : Ho Jin Shin(Real Edu Company)

email: good_signal@naver.com

Received May 12,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July 14,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1. 서론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즉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개인마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원하는 직업이 생긴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 외에 개인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는 수단으로 자아실현 과정에 필수적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자기 이해와 직업 탐색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정해진 것이면 올바른 의사결정이다[1].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시기로 삶에서 처음으로 직업을 결정할 기회가 주어짐으로 자신이 선호하거나 선택한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직업 선택은 전 생애 발달 과정을 거치지만, 실질적인 직업 결정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로 대부분 대학생 시기에 결정된다[2]. 이에 대학들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하면서 더 나은 직업인 배출에 의의를 두며[3], 대학 간의 무한경쟁에서 대학 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4]. 그 목적으로 정부와 각 대학은 청년수당, 청년취업사관학교, 취업 지원제도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책을 시행한다. 대부분 학생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점관리, 어학연수, 토익점수, 자격증 취득, 공모전 수상, 인턴십,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등 이른바 취업 스펙 10종을 기본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각 대학,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연보 조사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6년 67.7%, 2017년 66.2%, 2018년 67.7%, 2019년 67.1%, 2020년 65.1% 모두 60%대로 낮게 나타났다[5]. 또한, 통계청 조사의 2021년 전체 인구 실업률은 3.7%이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7.7%로 전체 인구 실업률의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실업률이란 취업을 원해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의 경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서 공식적인 실업률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6]. 즉 조사에 반영된 실업률 외에도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대학 재학 기간에 개인의 직업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권유, 사회 풍습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 재학 시기에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사회문제인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각 대학의 취업지원책 및 교육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대학의 직업교육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정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직업교육의 학습 목표는 취업을 위한 정보 탐색과 역량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올바른 직업가치관 탐색에 한계가 있다.

직업가치관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점이다[7].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적 측면에서 직업의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와 같은 직업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8]. 또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대학 재학 시기에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9] 직업가치관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학은 직업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현재 고려하는 정도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자주적인 태도로 직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요구분석 기반의 직업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수업 참여도와 전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수업 참여도와 전공 만족도를 매개했을 때 진로 준비 행동에 매개 효과가 있었다[10].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대학 유형,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 대학생, 두 유형의 대학생 모두 직업가치관 중 내적 직업가치와 외적 직업가치가 진로 계획에 영향을 주었으며, 외적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진로 미결정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났다[11].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 선택 동기의 관계를 보면, 보건 전공 대학생은 전공 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12]. 이러한 연구는 무용 전공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 중 내재적 동기는 직업가치관 중 성취감, 전문성, 능력에 유의한 영향이 있고, 외재적 동기는 성취감, 능력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와 유사하다[13].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 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항공 서비스 전공 대학생은 직업가치관을 구성하는 외재적 직업가치관과 내재적 직업가치관 모두 전공 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14]. 이러한 연구는 뷰티 전공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직업가치관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유사하지만[15]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경우, 내재적 직업가치관만 전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

는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이다[16].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보면, 뷰티 전공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 결정 및 구직결정에 유의한 영향이 있고, 직업가치관은 전공 만족도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중 진로 결정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었다[15]. 이러한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외재적 직업가치관 모두 전공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와 유사하다[16].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수업 참여도, 전공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진로 계획, 진로 미결정, 진로 준비 행동,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등 대학 생활과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요인에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업가치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직업가치관의 요인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인지를 도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이 직업가치관과 관련한 교육에서 무엇을 우선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직업가치관 요인의 순위뿐 아니라 어느 요인까지 고려해야 할 것인지, 상위 수준의 요인 중에서도 더욱 필요로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교육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요구분석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다[17]. 이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교육 요구분석이라 하며, 교수체제설계에서 요구분석은 필수적으로[18], 현재 수준과 기대하는 수준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교육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 조정하는 과정으로 현재와 기대하는 수준 간의 차이를 결정하여 그 차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위계를 결정하는 것이다[19].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학습자의 교육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20]. 따라서 대학에서의 학습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의 첫 시작은 학생들이 인지하는 직업가치관에 대한 현재와 기대하는 수준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직업가치관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을 찾아 위계를 부여하는 우선순위 결정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을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교수설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요구분석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료와 증거를 찾아내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교육 요구분석에서는 잠재적인 교육내용을 도출하여 개발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21]. 교육 요구를 찾고,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와 증거를 찾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문 기법을 활용한다. 응답 대상자에게 각 항목의 현재 수준과 기대하는 목표 수준을 묻고, 두 수준의 차이 값을 분석하는 설문 기법은 요구분석의 개념적 차원과도 부합하고 설문 기법을 통해 수집된 두 수준의 값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설문 기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요구분석을 할 때는 t검정, Borich의 요구도 공식, The Locus for Focus 모형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활용된다[18].

최근 교육 요구분석 연구 동향은 우선순위 선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의 세 가지 분석을 중복으로 활용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도 t검정, Borich의 요구도 공식,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장점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교수체제설계에서 교육 요구분석은 교육목표를 세우고 교수 내용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육 훈련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해 요구를 기반으로 대학 차원에서 직업가치관 교육 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직업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기초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직업가치관에 대해 현재 고려하는 정도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교육 요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셋째, 도출된 교육 요구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5일 동안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 22명을 제외하고 478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 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자원자 패널에 의한 인터넷 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23]. 인터넷 조사는 표본이 특정 계층에 편향되어 일반 모집단을 목표로 하면 그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 등 특정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는 활용될 수 있다[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조사 전문 회사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소속된 대학생 패널 중 선별된 대상에게 웹 설문지가 링크된 이메일과 문자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무응답 제거를 위해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으면 페이지를 넘어갈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시간은 불성실 응답자를 판별하는 주요 변수로써 응답 시간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짧으면 설문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성실 응답자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 시간이 전체 응답 평균보다 지나치게 짧았던 응답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데이터 검증과 분석은 조사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통계학을 전공하고 다수의 조사 회사에서 전문위원으로 소속되어 자문 업무를 하는 조사 전문가인 본 연구의 저자가 직접 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조사(2014)에서 이용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26]. 총 11개 문항으로 시간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 능력 발휘(직무능력, 창의성, 리더십 등), 사회적 인정,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유재량권), 고용 안정성, 자아실현(성취감), 사회적 기여, 승진 기회, 일의 흥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5점 Likert 척도로 문항을 측정하였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어느 정도

중요하다’ 4점,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측정하고 현재 고려하는 정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점,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어느 정도 고려한다’ 4점, ‘매우 고려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804, 현재 고려하는 정도 .843으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t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t검정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단순 차이만 고려할 뿐 우선순위 결정에 한계가 있다. Borich 요구도 결과는 중요도에 가중치를 두어 t검정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지만, 어느 순위까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의 한계가 있다.

The Locus for Focus 모형은 Borich 요구도의 순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어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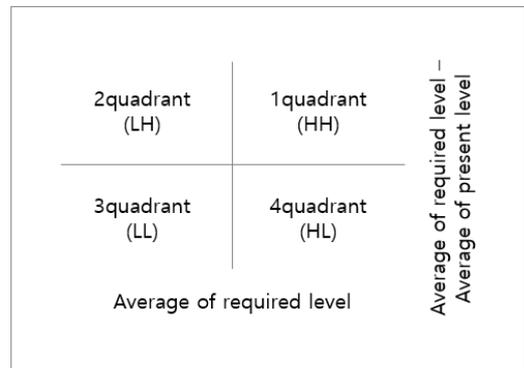


Fig. 1. The Locus for Focus Mode

Fig. 1과 같이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사분면에서 가로축은 바람직한 수준의 값, 세로축은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로축의 중앙값은 바람직한 수준의 평균값, 세로축의 중앙값은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1사분면은 두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높고 바람직한 수준 역시 평균값보다 높은 HH분면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크게 고려되는 영역이고, 3사분면은 두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낮고 바람직한 수준 역시 평균보다 낮은 LL분면으로 우선순위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영

역이다. 2사분면은 두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높지만 바람직한 수준의 평균값은 낮은 LH분면이고, 4사분면은 두 수준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낮지만 바람직한 수준의 평균값은 높은 HL분면이다[18].

좌표평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최우선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해당 개수만큼 Borich 요구의 상위순위 항목을 비교하여 중복된 항목을 최우선순위로 결정한다. Borich 요구 또는 The Locus for Focus 모형 중 한 곳에만 나타난 항목들을 차 순위 항목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한 곳에만 나타나는 항목이 없으면 차 순위를 결정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차 순위 항목은 HL분면과 LH분면 중 어떤 곳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HL분면에서 불일치 평균에 근접하면서 중요도 평균이 높은 항목들을 차 순위로 추천할 수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각 분석 방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5단계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는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2단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대응 표본 t검정, 3단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와 중요도를 고려한 Borich 요구의 우선순위 도출, 4단계는 Borich 요구의 우선순위를 The Locus for Focus 모형 좌표평면에 제시, 5단계는 좌표평면에서 최우선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개수만큼 Borich 요구의 상위순위 항목을 비교하여 중복된 항목을 최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차 순위는 HL분면에서 불일치 평균에 근접하면서 중요도 평균이 높은 항목으로 결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학적 특성 결과

조사 대상자 특성은 성별에서 남성 220명(46.0%), 여성 258명(54.0%), 학년별로 1학년 29명(6.1%), 2학년 118명(24.7%), 3학년 109명 (22.8%), 4학년 179명 (37.4%), 5학년 이상 43명(9.0%)이며, 대학 소재지 권역별로 수도권권역(서울, 경기, 인천) 260명(54.5%), 비수도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218명(45.5%)으로 나타났다.

3.2 대학생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 분석

첫째, Table 1을 보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서 중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대응 표본 t검정 분석 결과, 모든 직업가치관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직업가치관의 모든 항목은 대학생의 교육 요구로 도출되었다.

‘시간 여유’는 $t=11.393(p=0.000)$, ‘쾌적한 근무환경’은 $t=11.849(p=0.000)$, ‘경제적 보상(월급, 수당, 수입 등)’은 $t=10.495(p=0.000)$, ‘능력 발휘(직무능력, 창의성, 리더십 등)’는 $t=7.961(p=0.000)$, ‘사회적 인정’은 $t=5.425(p=0.000)$,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유 재량권)’은 $t=7.934(p=0.000)$, ‘고용 안정성’은 $t=5.714(p=0.000)$, ‘자아실현(성취감)’은 $t=5.884(p=0.000)$, ‘사회적 기여’는 $t=7.652(p=0.000)$, ‘승진 기회’는 $t=7.134(p=0.000)$, ‘일의 흥미’는 $t=6.527(p=0.000)$ 으로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가치관의 11개 요인에서 ‘현재 수준과 미래에 필요한 바람직한 수준 간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둘째, Table 1을 보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에서 Borich 요구로 분석한 교육 요구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한 근무환경(1.793), 시간 여유(1.722), 경제적 보상(월급, 수당, 수입 등)(1.516),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유 재량권)(1.002), 일의 흥미(0.928), 능력 발휘(직무능력, 창의성, 리더십 등)(0.926), 승진 기회(0.888), 사회적 기여(0.784), 자아실현(성취감)(0.782), 고용 안정성(0.763), 사회적 인정(0.626) 순이다.

셋째, Fig. 2를 보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의 최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확인하였다.

HH분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L1 시간 여유’, ‘L2 쾌적한 근무환경’, ‘L3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 3개 항목이 나타났다.

HL분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높으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가 작아서 차 순위로 고려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L11 일의 흥미’와 ‘L7 고용 안정성’ 2개 항목이 나타났다.

LH분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낮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서 HH분면, HL분면의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에 해당한다. ‘L6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유 재량권)’ 1개 항목이 나타났다.

Table 1. An Analysis of the Priorities of Educational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on Work Values

Work Values	Importance		Present level		Difference		Borich	Priority
	Mean	SD	Mean	SD	Mean	t(p)		
include time	4.10	±0.755	3.68	±0.840	0.42	11.393 (0.000)	1.722	2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4.27	±0.742	3.85	±0.880	0.42	11.849 (0.000)	1.793	1
economic compensation (salary, income, allowance, etc.)	4.46	±0.725	4.12	±0.905	0.34	10.495 (0.000)	1.516	3
ability performance (Job competence, creativity, leadership, etc.)	3.86	±0.835	3.62	±0.917	0.24	7.961 (0.000)	0.926	6
social recognition	3.68	±0.918	3.51	±0.949	0.17	5.425 (0.000)	0.626	11
Authority to decide by yourself (discretionary powers)	3.71	±0.870	3.44	±0.947	0.27	7.934 (0.000)	1.002	4
job security	4.24	±0.797	4.06	±0.858	0.18	5.714 (0.000)	0.763	10
self-realization (Sense of accomplishment)	3.91	±0.888	3.71	±0.986	0.20	5.884 (0.000)	0.782	9
social contribution	3.41	±0.984	3.18	±1.012	0.23	7.652 (0.000)	0.784	8
promotion opportunity	3.70	±0.912	3.46	±0.937	0.24	7.134 (0.000)	0.888	7
job interest	4.22	±0.803	4.00	±0.924	0.22	6.527 (0.000)	0.92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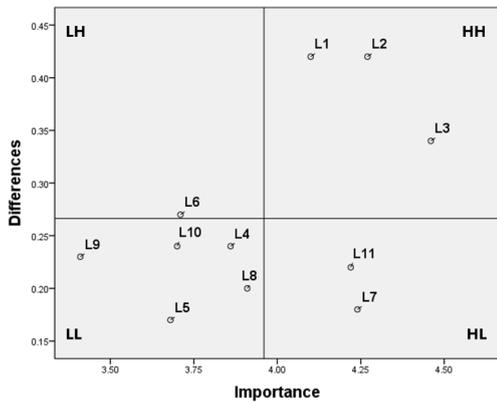


Fig. 2.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for University Students' Work Values by The Locus for Focus Mode

LL분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낮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도 낮은 영역으로 우선순위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출된 항목은 'L4 능력 발휘(직무능력, 창의성, 리더십 등)', 'L5 사회적 인정', 'L8 자아실현(성취감)', 'L9 사회적 기여', 'L10 승진 기회' 5개 항목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 순위는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최우선 순위 영역인 HH분면에 속한 3개의 개수만큼 Borich 요구의 상위 순위 3개를 비교하여 중복된 항목으로 결정하였다.

HH분면에 해당하는 '시간 여유'와 '쾌적한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 3개와 Borich 요구의 우선순위에서 1위 '쾌적한 근무환경', 2위 '시간 여유', 3위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의 직업가치관은 일치하였다. 차 순위는 HL분면에서 불일치 평균에 근접하면서 중요한 정도의 평균이 높은 '일의 흥미'가 Borich 요구의 우선순위에서도 5위로 높은 순위에 나타나 차 순위로 도출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 직업가치관 교육 훈련 시 무엇을 우선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에서 교육할 때, 직업가치관의 순위뿐 아니라 어느 순위까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인지, 상위 수준에 있는 요인 중에서도 더욱 필요로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선별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 분석의 필요로 시작되었다.

대학생이 직업가치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는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에서 11개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Borich 요구의 우선순위는 '쾌적한 근무환경', '시간 여유',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유 재량권)', '일의 흥미', '능력 발휘(직무능력, 창의성, 리더십 등)', '승진 기회', '사회적 기여', '자아실현(성취감)', '고용 안정성', '사회적 인정' 순이다.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좌표평면 결과와 Borich 요구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서 최우선 순위는 '시간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 3개, 차 순위는 '일의 흥미' 1개가 도출되었다. 즉 직업가치관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요인은 '시간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월급, 수입, 수당 등)', '일의 흥미'로 해석될 수 있고,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1999년 연구에서 대학생은 '경제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27], 2014년 연구에서도 20대의 기준은 '경제적 보상', '근무환경', '고용 안정성', '일의 흥미' 순으로 도출된 결과를 일부 반영한다[26]. 직업가치관은 사회 전반적인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그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선택하거나 의사 결정한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한다[2]. 따라서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한 목표가 기대 수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2002년과 2006년, 2009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 선택 시 가장 큰 변화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였다. 직업에서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2년 21.5%, 2006년 31.7%, 2009년에는 36.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이라는 시대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8]. 실질적인 직업 결정 시기는 대부분 대학생 시기에 결정되므로[2] 이러한 사회 환경은 사회 구성원인 대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현재, 2022년도에 대학생에게 '시간 여유'가 가장 최우선 순위 영역의 직업 가치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직업환경에서 시간 여유가 주요 요인으로 등장했고, 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18년에 워라벨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그동안 일과 성장을 위해

조직에 집중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여가를 우선시하는 2030 세대의 선호가 반영된 말이다. 사회 전반에 워라벨의 확산은 직업 가치에서 시간 여유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법적으로도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워라벨과 관련된 다양한 법이 제정되었다[29]. 2018년 2월,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직업환경에서 시간 여유는 사회 구성원인 대학생에게 더욱 중요한 직업 가치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18년의 통계청 연구에서도 일에 대한 가치가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30].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삶에서 일보다 시간 여유가 점차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대학생에게 시간 여유가 가장 최우선 순위 영역의 직업 가치라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직업가치관은 그 시대의 환경과 함께 변화하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와 문화 등 그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현재의 직업가치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2]. 본 연구는 2022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에 대해 단순히 현재 수준 또는 바람직한 수준만 조사하지 않고, 두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탐색하는 교육 요구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대학에서는 직업가치관과 관련한 교육에서 '시간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 '일의 흥미' 총 4개의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대학 재학 기간이 다르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 역량과 경험의 폭이 다르므로 학년, 전공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가치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여 자주적인 태도로 올바른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References

- [1] J. C. Lee,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Development Measures for Career Explor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 pp.80-119, 1994.
- [2] J.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 of a Work Value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e, Ph.D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uju, Korea, pp.1-37, 2017.
- [3] H. Y. Jeong,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Ph.D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p.15, 2010.
- [4] M. S. Seo, "A Study on the Effects of Practice-Oriented Curriculum and Occupational Value 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services -",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4, pp.091-118, 2021.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1.11.4.005>
- [5] H. N. Lim, K. J. Lee, M. Y. Cho, H. S. Lee, S. Y. Jeon, Statistical Yearbook for Employment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A research repor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42-43.
- [6] Index, Unemployment rate, Statistics Korea, 2022,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09>, (accessed Apr. 13, 2022).
- [7] Kalleberg, A. L.,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2, No.1, pp.124-143, 1977.
DOI: <https://doi.org/10.2307/2117735>
- [8]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Target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who specialized in cooking/dining related-*, Ph.D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p.4, 2014.
- [9] S. K. Park, H. S. Lee,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12, No.1, pp.219-235, 2016.
- [10] N. H. T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es and Professional Value on the Behavior of Future Occupation : Through class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Sehan University, Jeollanamdo, Korea, pp.90-93, 2018.
- [11] H. Y. Lee,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Work Values on Job See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16, No.3, pp.39-65, 2021.
DOI: <http://doi.org/10.21329/khrd.2021.16.3.39>
- [12] S. Y. Hong, H. R. Hur, T. S. Kim, "The rel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major selection motivation, Work values, and Campus life adjustment of health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1, pp.518-524, 2021.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1.7.1.518>
- [13] H. J. Lee, Y. K. Lee,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es of Dance Major Students on Vocational Values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5, No.1, pp.1-12, 2018.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18.35.1.1>
- [14] K. O.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pp.93-96, 2020.
- [15] Y. H. Pyo, M. Y. Yo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 Value View and Career Decision-Marking Self-Efficacy of Beauty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10, pp.144-153,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0.144>
- [16] J. H. Ji, S. E. Heo, "The Effects of Work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6, pp.183-193,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6.183>
- [17] D. Y. Cho, "The state of need analysis research for building programs for adults: 1990-2005",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9, No.1, pp.85-106, 2006.
- [18] D. Y. Cho, "Exploring How to Set Priority in Need Analysis with Surve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0, No.35, pp.165-187, 2009.
- [19] Y. K. Chung, J. M. Kim, "Needs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rporate Employees",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 Vol.19, No.1, pp.1-30, 2009.
- [20] S. K. Oh, J. S. Jun, Y. H. Park, "Complementing a Typical Educational Needs Analysis Using a Survey in Setting the Priority of the Need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27, No.4, pp.77-98, 2014.
- [21] D. Y. Cho, M. R. Kim, E. J. Jung, "A strategy for developing an inservice program for school teachers: an index in the teacher evalu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7, No.3, pp.163-182, 2010.
DOI: <http://dx.doi.org/10.22804/jke.2010.37.3.007>
- [22] S. M. Nam, "Analysi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Needs about Program outcom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7, pp.315-324,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7.315>
- [23] M. H. Huh, S. K. Cho, "Propensity Adjustment Weighting of the Internet Survey by Volunteer Panel", *Survey research*, Vol.11, No.2, pp.1-28, 2010.
- [24] E. S. Youn, Y. W. Kim, "Methodology for Internet Survey: Case Study", *Survey research*, Vol.3, No.1, pp.25-51, 2002.
- [25] Y. S. Lee, J. Y. Lee, K. T. Lee, "Amounts of Responding Times and Unreliable Responses at Online Surveys",

Survey research, Vol.9, No.2, pp.51-83, 2008.

- [26] Y. K. Jeong, C. S. Park, S. R. Yoon, Work Values and Work Ethics of Korean(2014), A research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p.268.
- [27] Y. H. Park, *A Study on Improving th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Sense of Job Value for Junior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Taeye University, Taeye, Korea, pp.26-67, 2000.
- [28] Index, Unemployment rate, Statistics Korea, 2010,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7/1/index.action (accessed Jun. 20, 2022).
- [29] J. S. Kim, J. H. Yoon, Y. H. Ju, "Effects of Work-Life-Balance on Motivation,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on Behavior",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Vol.12, No.2, pp.29-58, 2019. DOI: <https://data.doi.or.kr/10.22834/pds.2019.12.2.29>
- [30] S. K. Han, C. S. Park, T. J. Park, J. H. Jang, C. H. Park, Work Values and Work Ethics of Koreans(2018), A research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p.66.

신 호 진(Ho Jin Shin)

[정회원]



- 2021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적자원개발학과 (인적자원개발 학석사)
- 2019년 6월 ~ 현재 : ㈜열린컴퍼니 대표

<관심분야>

교육컨설팅, 평생교육, 리더십, HRD, 조직문화

윤 지 아(Ji-A Youn)

[정회원]



- 2018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교육학석사)
- 2021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교육학 박사과정)
- 2021년 1월 ~ 현재 : ㈜퍼블릭에듀 대표

<관심분야>

교육컨설팅, 평생교육, 리더십, HRD

박 찬 주(Chan Joo Park)

[정회원]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22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교육학 박사 수료)
- 2021년 7월 ~ 현재 : ㈜메쉬코리아 인재문화실 실장

<관심분야>

교육컨설팅, 리더십, 조직문화